



남원 'Play남원 아카데미' 한문철 변호사 강연

남원시는 지난 7월 25일, Play남원 아카데미에 한문철 변호사를 초청해 '교통사고로부터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는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집의 청블리 회원들을 비롯하여 교통봉사단체 회원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한편 한문철 변호사는 남원시에 반강조기와 모자 50세트를 기부, 강연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가슴까지 훈훈하게 하였다.

다음 Play남원 아카데미는 9월 5일(목) 저녁7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님을 초청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에서는 지난 26일 경찰서 3층 두승산홀에서 2024년도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4명과 지역사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언론인·교육자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등 경미 범죄로 형사입건 된 8명을 대상으로 동종전력, 피해자와 합의, 행위 등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들이거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대상사건 8건에 대해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김한곤 서장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적극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위해 도움을 주도록 더 많은 대상자를 발굴하여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 공덕면 양반마을, 어르신 섬김 으뜸마을 추진

김제시 공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양반마을(이장 오정근)이 2024년 '어르신 섬김 으뜸마을'로 선정돼 지난 28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첫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어르신 섬김 으뜸마을 인증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김제를 전국 제일의 어르신 섬김도시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공덕, 세대를 잇는 징검다리'라는 주제로 참여자 사전 교육과 사업 일정 소개, 소통과 경험을 위한 도마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미국 학생들, 익산서 홈스테이하며 우정 쌓는다

자매도시 컬버시 학생교류단, 10박 11일 일정 교류 프로그램 참여

익산시와 자매도시인 미국 컬버시(Culver)의 학생들이 교류를 통해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며 우정을 쌓고 있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컬버시 학생교류단은 지난 25일부터 10박 11일의 일정으로 익산시를 방문해 지역 학생 가정에서 머물고 있다.

익산시는 국제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컬버시와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학생교류 프로그램은 양 도시의 청소년들이 격년으로 익산시와 컬버시를 상호 방문해 홈스테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8월에는 익산 청소년들이 열흘간 컬버시에서 머물렀다.

올해는 컬버시 학생들이 익산을 방문해 한국의 문화와 가정생활을 체험한다. 또한 익산 학생들과 함께 합라 한옥마을과 파주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단원으로 참가한 원광여자고등학교 박서연 학생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번 길을 와준 컬버시 학생교류단



익산시와 자매도시인 미국 컬버시(Culver)의 학생들이 교류를 통해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며 우정을 쌓고 있다

의 익산 방문을 환영한다"며 "익산시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컬버시와 협력하며 우의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1983년 미국 컬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끈끈한 40년 우정을 이어가며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매결연 40주년을 맞아 양 시 대표단이 상호 방문해 청소년,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청소년 교류단, 이시카와현에서 교류활동 펼쳐

12명 도내 중학생·현지 청소년들, 홈스테이·학교 교류·문화 체험 등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교류단이 지난 26일부터 31일까지 교류지역 이시카와현에서 현지 청소년들과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양 지역 청소년 정례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도 중학생 12명이 현지 청소년들과 5박 6일 동안 홈스테이, 학교교류,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같이한다.

26일부터 28일까지는 지난해 전북을 방문한 이시카와현 중학생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진행하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문화와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9일에는 가나자와시에 위치한 미나미초바타중학교에 방문하여 양 지역 학생들이 준비한 K-POP공연, 합창, 전통놀이, 각자의 국가, 지역에 대한 퀴즈 등 교류활동을 진행했다.

교류활동에 참가한 월명중학교 김희찬 학생은 "일본 친구들과 만나 문화와 생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느끼는 보

람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따뜻하게 반겨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한편 방문 첫날인 이시카와현 하세 히로시 지사 예방에서, 하세 지사는 "올해 노토지역 지진 발생으로 인해 큰 아픔을 겪었지만, 전북의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며 양 지역 간 견고한 신뢰 관계를 강조했다.

또한 "23년간 이어온 전북자치도와의 청소년 교류 중 가장 중요한 교류 하나로, 이번 만남이 양 지역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가자 근영중학교 강태인 학생은 "음식, 전통 문화와 예술 등 전북과 이시카와현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본에 대해 더 알아가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청소년 교류단은 금박체험, 지오파크 등 다양한 문화 체험 일정을 마치고 31일 귀국한다. /이만호 기자



김제시, '아이(eye) 컨택' 특화프로그램 만족도 UP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서정수)가 지난 27일 7가구를 선정해 부모·자녀 관계향상을 위한 '아이(Eye)컨택'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이(Eye)컨택'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관계형성 교육과 체험마당으로 구성됐다. 관계형성 교육은 자녀 양육 방법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 다뤘으며, 체험마당을 주제로 가족 소운동회,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곤충 관찰, 아로마 테라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신체 및 정서적 활동은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줬으며 특히 상대방의 눈높이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가정 내 유대감과 한층 돈독해진 관계를 재정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용진읍, 봉사골 생활체육공원 코스모스 식재

완주군 용진읍 새마을부녀회(회장 신점순), 이장협의회(회장 민성필), 체육회(회장 송재섭)가 성공적인 용진읍민의 날을 위해 힘을 합쳤다.

29일 용진읍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오는 10월 12일 봉사골 생활체육공원(간중리 산28-1)에서 진행될 제33회 용진읍민의 날을 위해 코스모스를 식재했다.

40여 명의 이장·부녀회장들은 생활체육공원 내 체조 작업, 코스모스 식재 등 환경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신점순 부녀연합회장은 "다함께 심은 코스모스가 용진읍민의 날에 환하게 필 생각을 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민성필 이장협의회장은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인 봉사골 생활체육공원의 환경 정화활동을 위해 이장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체육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추진해서 뜻깊은 활동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임실 삼계면, 벼 병해충 무인 항공 공동방제 추진

삼계면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지난 22일부터 실시 중이다.

벼 병해충 무인 항공 공동방제는 1차 260 농가, 2차 255 농가가 신청하여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현재 1차 신청 면적 303ha는 방제를 마쳤으며, 2차 293ha는 내달 5일부터 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항공 무인 방제를 통해 개시무늬병, 흑명나방, 도열병 등 병해충에 대한 방제작업이 이루어지며, 방제비는 군비 30%, 지역농협 30% 부담하며 농가는 40%만 부담하게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945-4113	중앙지사 010-9088-8874	남원지사 632-398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8655	김제지사 546-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성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89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68-9923	고창지사 563-8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